**잠2005 Note**

**◆Cross check : 잠1804**

잠1804. 사람의 입의 말들은 깊은 물들과 같으니라, 그리고 지혜의 원천(源泉)(마코르:파진 어떤 것, 근원,눈물의,피의, 행복의,지혜의,자손의,원천,유출,샘,솟아나는 우물)은 용솟음치는 [나바:용솟음쳐 나오다,말하다,(나쁜 냄새를)내다,트림을 하다,넘쳐흐르는,쏟다,풍성히 발하다] 개울(나할:개울,좁은 골짜기,갱도,시내,홍수)과 같으니라.